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천주교구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크리스토폴 스팀 방문세차사업 ”

천주교구 유지재단 산하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는 가톨릭 정신에 따라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함께 동반해 주기를 당부하셨듯이, 저희 청주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그들이 꿈꾸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활 특례,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잦은 실패와 좌절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배움의 정도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센터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바꾸기 위해 가치 중심적인 자활사업을 운영하여 사회 공헌의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주지역자활센터는 매년 9월, 다음 연도 신규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자립 의지가 강한 분들이 의견을 모아 시장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데, 이미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체험한 몇분이 자신들의 자립 기회를 찾고자 스팀 방문세차사



업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로 암 수술과 투병을 오래 하셨던 분, 알코올 중독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분, 미혼모로서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 편마비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 성인이 되었지만 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살기위해 고군분투하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 세차사업을 위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청소기와 가정용 휴대 스팀기를 빌려와서 차량 세차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정용 장비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 부족한 장비로나마 차량 세차를 봉사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러 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 한정된 사업비로 모든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팀 방문세차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와 이동 수단으로 승합차가 필요하지만, 모두 고가의 제품들이라 저희 자활 센터 정부 지원금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은 '자립'입니다. 자립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고, 그 기반을 주축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 우리 청주자활인들은 본인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전하고 더 큰 나눔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10월31일~12월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천주교구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